

# 호국 사찰, 역사의식 고취 나선다

## 전등사 제12회 삼랑성 축제 · 장경사 제1회 의승군 문화제

강화도와 남한산성 등 고려, 조선시대 국가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 지역의 사찰들이 의승군들의 호국불교정신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성남 장경사(주지 경우)는 조선시대 행궁인 남한산성의 불교문화 복원을 위해 10월 13, 16, 23일 3일간 장경사 일대에서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를 봉행한다.

이번 문화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앞두고 이뤄지는 전통문화 복원의 일환이다. 장경사는 조선시대 남한산성을 지키던 의승군 군영인 승영이 있던 사찰로 당시 남한산성 축성 및 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강화 전등사에서 지난해 열린 제11회 삼랑성 축제에서 호국 영령들을 위한 다례제가 봉행되고 있다. 최근 호국 사찰을 중심으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지역축제가 기획·개최되고 있다.

### 장경사-승영복원 불사 진행 전등사-지역문화축제 발돋움

성을 만들고 지킨 스님들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도 10월 6일~14일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에서 열린다. 삼랑성 축제는 전등사와 주변 삼랑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지역 연례축제다. '관(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6일 가수 정재형, 루시드 폴, 김장완 밴드, 퓨전국악 '다비' 등이 출연해 어쿠스틱과 락 음악을 함께 선사하는 '전등사 가을음악회'가 마련된다. 7일에는 전등사 역

대 스님들에 대한 '다례제'와 양현수·어재연, 죽산 조봉암 등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제'가 열린다. 특히 이날 영산대제에서는 고려 원종이 대(對) 몽골항쟁 때 전등사에서 4개월간 대불정오성도량(大佛頂五星道場)을 펼친 장면을 재현될 예정이다. 삼랑성 축제에는 지역민을 위한 공연과 전시도 함께 펼쳐진다. 인천·강화 지역 문화 단체의 모듬북과 설장구, 화관무, 부채춤, 은율탈춤 등의 공연이 이어지며 강화 특산물인 화문석공예, 짚풀공예, 도자기물레 등 각종 체험행사와 지역 특산물 장터 등도 마련된다.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은 "삼랑성 축제를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지역 어르신 대상 문화활동 실시

### 거창군살의쉼터, 19일부터 3차례

거창군살의쉼터(관장 도영)는 9월 19일, 21, 24일 총 3회에 걸쳐 총 9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활동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문화 활동에 함께한 어르신들은 "직원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거창군살의쉼터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 은해사 스님들 추석 맞아 자비행

###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 스님들이 추석을 앞둔 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을 비롯한 20여 명의 본말사 스님들은 9월 21일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을 찾아 독거노인과 결식노인 60여 명의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또 점심시간에는 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을 위해 급식활동을 진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9월 20일 열린 월산 대종사 추모 다례제에서 문도 스님들이 예를 올리고 있다.

## 월산 대종사 15주기 추모 다례제 봉행

### 20일 불국사서 엄수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9월20일 경내 무설전에서 성립당 월산 대종사의 제15주기 추모 다례제를 엄수했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을 비롯한 수덕사 방장 설경, 일로의원 월탄,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등 월산문도회 대종 및 불자 600여 명이 다례제에 동참, 월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제에서 월산문도회 운영위원장 설

조 스님은 "대종사께서는 수행자로서 올곧은 면모를 보였으며, 대중포교에도 남다른 원력을 보였으며"며 회고의 인사말을 올렸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올해는 월산 대종사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조만간 월산스님의 일대기를 영상물로 제작해 큰 스님의 정신 세계의 범을 널리 퍼뜨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모 다례 후에는 참가대중들은 대종사의 사리탑과 행적비를 참배하고 스님의 님을 기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아름다움은 지극한 정성으로부터

신라 말 이후 우리나라 사찰은 산간벽지에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화엄삼찰의 건립과 더불어 구산선문이 열리면서 교리를 실천하고 선 수행에 적합한 땅을 찾는 결과였다. 이와이런 다홍차마라고 산속에 자리를 잡을 바에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 더 좋았으리라. 이른바 풍수적으로 물 좋고 바람 막기 좋은 곳이 바로 그러한 땅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사가 급한 산지에 절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골라 평평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지정지를 할 때 서양과는 달리, 절토보다는 성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능한 원생의 땅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이었다. 성토를 하기위해서는 석단이 축조되

어야하는데, 이 석단이야말로 우리나라 사찰의 수직적 경관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 구조물이다. 석단이 아름다운 사찰로는 단연 불국사와 부석사를 손에 꼽게 된다. 불국사는 돌을 잘 다듬어 목가구식으로 쌓아 올린 석단이다. 이 석단은 워낙 섬세하게 조성하여 1200여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그 예술성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부석사는 덩어리가 큰 산석을 날라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석단으로 불국사 석단에 비해 남성미가 돋보인다. 당시에 지금과 같은 장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한 석단을 축조한 것은 오로지 지극한 정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단을 쌓아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오

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신도수가 늘어나고 사찰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가용지가 필요해진 까닭이다. 문제는 석단을 쌓는 방법인데, 석산에서 가져온 깬 돌을 무질서하게 쌓아올려 하거나 보강토옹벽을 도입하여 한국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전통성이 가미된 콘크리트 옹벽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오래된 사찰에서 쌓아올렸던 석단의 아름다움을 최근에 축조한 석단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단순히 생각하면 예전과 같은 좋은 재료를 구하기 어렵고 값도 비싸 사중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석단을 쌓아올리면서 기울어진 정성이 예전에 비해 부족한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돌 하나 올리고 절 한번 하는 정성스러움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고 비싼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석단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도 사찰에 발파석을 이용해서 축조한 석단

신개념 크리스탈 반침 PC컵 밀납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http://www.shcandle.com)

##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강화사지발파석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썩초 90cm x90cm ② 약썩초 연봉 원기둥 7.0 f x34cm ③ 약썩초 돈타래 5.6 f x27cm  
 ④ 약썩초 밀대 4.7 f x25cm ⑤ 약썩초 1호 5.9 f x18cm ⑥ 약썩초 2호 5.9 f x14cm  
 ⑦ 약썩초 3호 4.7 f x13cm ⑧ 약썩초 4호 4.7 f x10cm ⑨ 약썩초 4호 반야심경 4.7 f x18cm  
 ⑩ 약썩초 3호 반야심경 4.7 f x13cm ⑪ 약썩초 2호 반야심경 5.9 f x14cm ⑫ 약썩초 1호 반야심경 5.9 f x18cm  
 ⑬ 약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곰) ⑮ 약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곰)

### 한뎃밀납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x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 f x34cm ③ 밀납초 돈타래 5.6 f x27cm  
 ④ 밀납초 밀대 4.7 f x25cm ⑤ 밀납초 1호 5.9 f x18cm ⑥ 밀납초 2호 5.9 f x14cm  
 ⑦ 밀납초 3호 4.7 f x13cm ⑧ 밀납초 4호 4.7 f x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x18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 f x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 f x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 f x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곰)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곰)

###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흰타 주황

### 원기둥나비

·도자기 인동

·인동용 파리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영리 35-16